

남성숙 칼럼



본사 부회장

밥 한공기 쌀값 220원

치해서 안 된다. 쌀 가격 하락은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농사가 식량공급 이상의 생명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 더이상 쌀시장 불안을 방지해서는 안된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했다.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30%가 떨어졌다.

농민들은 큰 한숨을 쉰다. 이대로 놔두면 큰 일이다. 농자재값, 농가 부채이자율상승, 인건비 폭등까지 겹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쌀값 자체가 너무 싸다. 다른 식품 가격이 모두 오르는 마당에 쌀값만 내리고 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했다.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30%가 떨어졌다.

정부는 더 이상 쌀값 하락을 방...

농민에게 책임져야 할 문제다. 정부 추산으로 지난해 27만톤이 초과 생산되었지만 매년 감당해야 할 수입 쌀 수매와 방출 제도를 이전처럼 정부가 수매하고 목표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쌀은 밥이요 생명이다. 쌀은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공동체의 근간이자 문화의 중심이었다.

작물 특성 상 쌀 생산은 시장상황에 맞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쌀은 밥이요 생명이다. 쌀은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공동체의 근간이자 문화의 중심이었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쌀이 조금 남아둔다고 호들갑을 떨고, 경제 논리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계 식량 부족 현상이 예견되어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 산업인 쌀 정책이 과거 인구 억제 정책처럼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식량안보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리 쌀의 세계화를 강구해야 한다.

전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국회에서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신속한 3차 시장격리를 요구했다.

이번에는 땀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시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충분한 식량을 보유하고 공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생존과 안보의 문제이다.

社說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특혜 논란 교훈 삼길

광주도시공사가 첨단 3지구 3공구 대행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공식 선정했다.

첨단 3지구 개발은 2025년까지 1조6천234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 북구·광산구와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대 361만6천여㎡(110만평) 면적에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서둘러야 하는 한국전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내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다.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무고하게 숨겨지거나 다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잔인히 아물지 않은 상흔으로 남아 있다.

과거사 정리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냄으로써 당사자의 명예 회복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의 촉구가 이어졌다.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보류, 광주 전남연구원에 현대 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공공기여금 협상을 진행해왔다.

핵심 100대 국정 과제이자 광주의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집적단지과 국립 심혈관센터가 포함된 프로젝트인 첨단 3지구 개발을 위한 분계약이 9월 중 체결될 것 같다.

한국전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학살을 마주해야 할 때다. 남북한의 극한 대립속에 군인과 경찰에 의해 무수히 저질러진 사례들이 그것이다.

화해위는 한국전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위원회로 2020년 12월 27기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기고



김경식

광주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상임이사

고속도로휴게소 장애인화장실 다시 장애인에게...

해'로 지정해 화장실의 고급화를 추진하면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을 가족사랑화장실(다목적화장실)으로 변경했다.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이란 명칭 변경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현상 해결조차 자유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장애인들의 상황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

필자는 사고로 경추를 다쳐 목 아래로 거의 사용을 못하는 지체1급 중증장애인이다.

저처럼 중추신경계(경추, 척추, 요추)를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 장애를 가지게 되면 신경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친 부위 아래에 위치한 내부 장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시간에 맞춰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한다.

그렇기때문에 화장실을 때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비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화장실과 가족사랑화장실을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들은

이곳 장애인화장실이 아니면 선택권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유있는 외침은 배제 되며 지금도 여전히 가족사랑화장실은 확대되고 있다.

필자는 가족사랑화장실을 만들어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유있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하루빨리 장애인화장실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 자리를 찾기 바랄뿐이다.

취재수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시민 생활 민원 목소리 귀 기울여야

했다는 데 아직까지 작업을 해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걷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나도 매일 운동을 하면서 걷는 길이지만 인도를 두고 차도로 많이 걷는다.

동에는 동사무소 직원, 지역구 시의원과 도의원 등이 있다.

하루를 잘하면 200%의 성과를 볼 수 있지만 하루를 잘못할 경우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침묵의 효과와 멈(MUM)의 효과에 대해 말한 바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정보 전달을 피하고 그나마 좋아하고 그에게 영합하는 말만 골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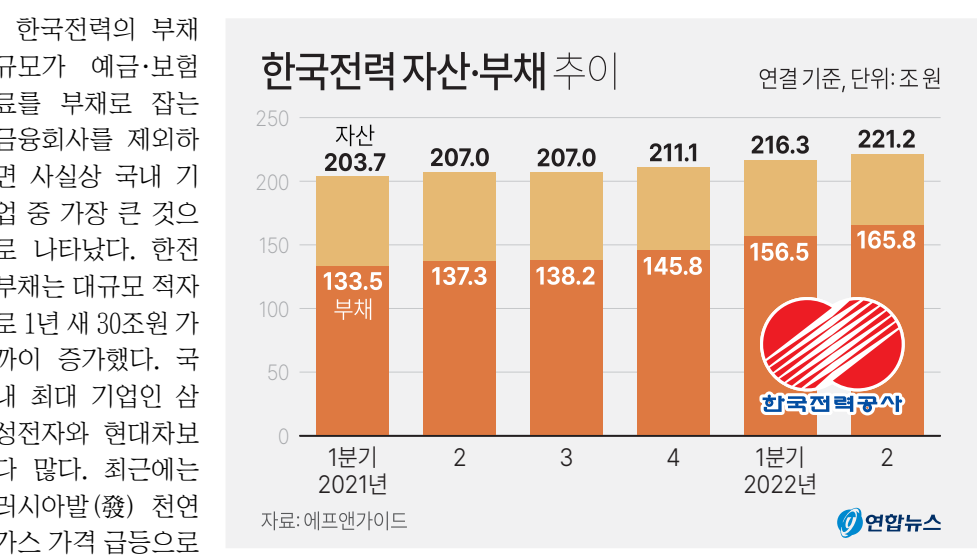
하나를 잘하면 200%의 성과를 볼 수 있지만 하루를 잘못할 경우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침묵의 효과와 멈(MUM)의 효과에 대해 말한 바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정보 전달을 피하고 그나마 좋아하고 그에게 영합하는 말만 골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그래픽 뉴스

한전 부채규모 국내 기업 1위...삼성전자·현대차보다 많아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예금·보험료를 부채로 잡는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올 연말이면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도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함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6월 말 현재 연결기준 부채(부채총계)는 전년보다 28조5천억원 늘어난 165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부채 1~7위는 KB금융 등 4대 금융지주와 기업은행, 삼성생명, 한화 등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지사(02)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